

# 한국전쟁과 소련

— 전쟁 주도권 문제에 대한 재검토 —

李 在 勳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 문제제기
- 전쟁 결정과정에서의 북한과 소련
- 맺 음 말

## 1. 문제제기

근래 한국전쟁의 기원 문제를 다룬 수많은 연구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한반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소련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전의 당사자인 김일성은 제외하고라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스탈린과 모택동이 행한 역할이 가지는 의미가 그와 같은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의

글에서는 소련의 '공격주의적 팽창정책'을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또 다른 글에서는 중국을 포함시켜 소련과 중국이 '음모'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모하게 했다는 이른바 '중국과 소련의 음모론' 혹은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북한, 중국, 소련의 '삼국공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주장은 근래에도 전쟁의 기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전쟁의 개전과 관련해서는 직접당사국인 북한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에게도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북·중·소 3국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유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미국과의 직접충돌을 회피하고 대신 중국에게 충돌의 부담을 떠넘기려 한 소련, 북한에 대한 혁명지원보다는 자국의 혁명완수와 해방된 국토의 정상적 통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중국, 무력을 통한 국토완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정과 소련이라는 후견국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북한 각각의 인식과 입장이 전쟁의 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소련, 중국 등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및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도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의 전말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옛 소련의 관련 문헌들을 비롯하여 과거에는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던 자료에의 접근이 대폭적으로 허용되면서 소련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정책 및 입장을 보다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sup>1)</sup> 그리고 그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국내외의 한국전쟁 연구에서 항상 논의의 핵심이 되어왔던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고, 그는 왜 그렇

1) 이제껏 많은 수의 관련 사료들이 입수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열린 대통령이 제공한 사료와 1993년 가을부터 우드로우 월슨센터에서 확보한 사료들이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게 했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 논의의 핵심을 이루었던 “누가”와 “왜”의 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이 옛 공산권 자료의 공개를 통해 더 이상 변동될 수 없는 사실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전쟁의 기원 문제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역사적 책임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간의 전쟁 주도권 논쟁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사실이 글과 관련이 있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스탈린에 의해 구상되고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스탈린 주도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곤차로프는 김일성을 스탈린이 운영하는 거대한 체스게임의 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up>2)</sup> 김영호 교수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미국과의 냉전대결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해 한국을 미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제거하려는 스탈린의 롤백전략(Rollback Strategy)으로 간주하고 있다.<sup>3)</sup> 한편 송중환 교수는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예상하고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함으로써 양국을 모두 약화시키려는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sup>4)</sup> 또한 황동하 교수 역시 “냉전이 결정적인 지역에서 미국의 노력을 철회시키고 서유럽에서 반공산주의의 사기를 약화시키며 서방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허수아비 정권을 이용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대리전을 치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었을까”<sup>5)</sup>라는 윌리엄 스톡의 언급을 인용하여 황

2)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42 참조.

3) 김영호,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 정치적 재해석-스탈린의 롤백이론’,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서울: 책세상, 2006), 177-214쪽 참조.

4) 송중환,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목표에 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39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205쪽 참조.

동하 교수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어찌 보면 한국전쟁에 대한 과거의 전통주의적 시각이 또 다시 유행하는 듯하다.

이 글은 스탈린 주도설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 물론 당시 소련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의 무력통일 의지와 혁명을 완수한 중국의 상황을 이용하려 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1949년 이래 국토완정의 기치를 내걸고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던 북한지도부의 행태는 ‘소련의 주도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집요하고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일성이 개전을 주도하였으며, 스탈린은 단지 김일성의 의지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전쟁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쟁 결정과정에서의 북한과 소련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당시 북한 주재 소련대사였던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 김일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지시하였다.

남조선과 관련하여 그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가 이 문제로 나와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를 맞아들여 회담할 준비를 갖추겠다. 이 모든 사항을 김일성에게 알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하라.<sup>5)</sup>

5)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전쟁의 발발-중·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 79(한국서양사학회, 2003), 118쪽 및 윌리엄 스톡 저, 김형인 외 공역, 『한국전쟁의 국제사』(서울: 푸른역사, 2001), 79쪽.

이 전문으로 인해 1950년의 한반도는 또 한 차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전문에는 선제공격을 통해 남한을 무력통일하고자 하는 김일성의 의지에 스탈린이 동의하는 극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전까지 스탈린이 보인 태도를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전문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당시까지만 해도 시종일관 북한의 선제공격 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전문이 발송된 1950년 1월 30일을 경계로 1949년과 1950년의 2개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북한의 움직임과 소련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소련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이 아닌 북한이 한국전쟁을 주도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 (1) 북한의 선제공격론과 소련의 전쟁역지: 1949년

1949년 3월 김일성은 북한의 당과 군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3월 5일의 회담을 거쳐 3월 7일 스탈린과 다시 만난 그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는다……우리 군대는 남조선군에 비해 강하다. 게다가 우리는 남조선 내에 강력히 일고 있는 게릴라활동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남조선의 인민대중은 친미정권을 증오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 확실하다”<sup>7)</sup>라는 말로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스탈린은 북한의 군사력 미비와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 김일성의 선제공격론을 좌절시켰다.<sup>8)</sup>

6)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ИРФ(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ф.45, оп.1, д.346, л.70.

7) A. V. 토르쿠노프 지음,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김일성-스탈린-모택동 기밀문서』(서울: 에디터, 2003), 44쪽; 「김일성의 남침책략(모스크바의 새 증언 1)」, 서울신문, 1995.5.15; 1949년 8월 12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암호전문, АИРФ, ф.3, оп.65, д.775, лл.102-106 참조.

그러면서도 스탈린은 “적이 침략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만간 침략할 것이다. 그들이 공격해오면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때 반격하면 당신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sup>9)</sup>라는 말을 덧붙여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반격전을 통한 대남공격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반격전의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스탈린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당시 시점에서는 한반도에서 아무런 소동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다. 왜냐하면 반격전을 전개한다고 해서 선제공격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북한의 군사력 미비와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련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컸고, 직접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은 자신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그 여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로서는 위에 제시한 상황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자신의 전쟁의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대화로 알려져 있다.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김일성은 선제공격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자신감을 함께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던 반면, 스탈린은 그러한 김일성의 의지를 억지하는 한편, 비록 형식적인 언사였기는 하지만 만약 적의 공격에 대항하는 ‘정당한 전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8) 당시 스탈린이 제기한 선제공격 불가의 이유는 “첫째, 북조선인민군은 남조선군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 북조선군은 수적으로도 남조선에 뒤진다. 둘째, 남조선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적대관계가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다. 셋째, 38도선에 관한 미소협정이 아직도 유효하다. ……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등이었다: Ibid.

9) Ibid.

김일성은 이와 같은 스탈린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채 귀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귀국한 직후인 1949년 봄부터 한반도의 상황은 김일성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 봄부터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그것도 남한의 전면적인 도발에 의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sup>10)</sup> 이는 그해 4월 17일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보에 의하면 남조선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기 위해 미군이 5월에 남조선에서 일본 인근의 섬으로 철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때를 맞춰 유엔위원회도 남조선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은 4월과 5월에 군대를 38도선 지역에 집중배치하고, 6월에 북쪽을 기습공격하여 8월 안에 북조선군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은 4월 10일 현재 개성 지역에 8천 명 정도(1개 보병여단)와 의정부 지역에 1만 명 정도(약 3개 보병여단)를 집결시켰다. 4월 10일 동두천에는 3대의 탱크가 하역되었다.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우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sup>11)</sup>

10) 북한에 대한 남한의 무력공세는 1949년 초부터 빈번하게 발생한다(1949년 1월 27일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3 및 1949년 2월 3일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6 참조).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이와 같은 남한의 공세에 대하여 “남조선군의 (전면적인) 공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남한이 “병력을 38도선으로 전진배치하고 주요방면에 집중시키는 것은 북조선으로부터 서울을 방위하기 위한 의도”(1949년 1월 27일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4.)로 판단하였으며, 북한 역시 남한의 “도발행위가 새로운 유엔위원단의 조선 도착과 관련이 있으며, 미군의 계속적인 남조선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38도선의 긴장을 조성할 목적”(1949년 2월 3일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9.)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았다. 즉 북한과 소련은 당시 펼쳐지고 있던 남한의 공세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전문을 보면 이 시기에 소련은 남한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0일 소련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와 소련군 총참모장 슈테멘코가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보에 의하면 남조선군의 38도선 집결이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측이 북조선정부군에 대하여 기존에 있었던 것에 비해 보다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는 새로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할 때, 북조선정부군 지휘부에 남조선의 보다 대규모의 도발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sup>12)</sup>

슈티코프 역시 5월 2일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침공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조선 당국이 38도선 부근 지역에 집결시킨 부대가 이미 41,000여명에 달하며, 그 중 평양 방면으로 향하는 인원은 3만 명이다. 북조선에 대한 진공작전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

6월 중에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3)</sup>

이후 바실레프스키와 슈테멘코의 건의에 따라 북한과 소련은 협의를 통해 남한의 대규모 침공에 대비한 방어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5월 2일 보고서에서 남한의 침공이 예상되는 시기로 거론되었던 6월 22일에 슈티코프가

11) 1949년 4월 17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25.

12) 1949년 4월 20일 바실레프스키, 슈테멘코가 스탈린에게 제출한 보고서, АПРФ, ф.3, оп.65, д.3, лл.29-30.

13) 1949년 5월 2일 슈티코프가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6, оп.9, д.14, лл.41-44.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에 잘 나와 있다. 이 전문은 북한군의 전반적인 현황, 전투력, 부대배치 등과 함께 남한군의 침공에 대비한 북한군의 대비책을 ‘결론 및 대책’으로 제시한 보고서이다.<sup>14)</sup>

한편 7월 13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은 남한의 대규모 침공이 실제로 임박했으며, 북한이 소련과 협의한 방어전략에 따라 실질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12일 웅진방면에서 38도선을 침범한 3명의 남조선군 병사들을 체포하였다…….

포로들은 그들의 지휘관이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북조선 점령을 마치기 위한 기습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증언하였다…….

남로당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승만이 비밀회의를 가졌는데, 그 회의에서 이승만이 북조선의 평화통일 제안은 최후통첩에 다름이 아니며, 북조선은 8월 혹은 9월에 반드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승만은 남조선은 북쪽에 앞서 7월에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군의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인들은 38도선 부근으로부터 소개되고 있다.

북조선은 416호 전보에 제시된 조치를 완료했다. 38도선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각 사단장들과 38도선 경비여단장들에게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내려졌다.<sup>15)</sup>

앞에 제시한 문건들을 살펴볼 때 1949년 4월부터 7월까지 북한과 소련은 남한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수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6월 22일에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북한과 소련 양측은 방어적인 측면이 강조된 군사

14) 1949년 6월 2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л. 68-75.

15) 1949년 7월 13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5, лл. 26-27.

대비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문건의 ‘결론 및 대책’에 38도선 부근에서 남한군의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를 대비한 북한 군사령부의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모든 사전대책의 강구를 통해 예상할 수 없는 남조선의 무력도발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라고 기술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문건들이 소련 측에 의해 소련의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될 수 있는 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했던 소련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시점에서 남한의 침공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대비책만이 절실했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입장은 전혀 달랐으리라 추측된다. 1949년 3월 스탈린에게서 ‘선제공격’은 해서는 안되지만 ‘반격전’은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은 김일성으로서 당시 보여졌던 남한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이 ‘정당한 전쟁’인 반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물론 소련 측에 의해 작성된 위의 문건들만을 가지고 당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접했던 북한의 관련 문건들에서도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소련 측의 다른 문건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보여진다.

우선 1949년 8월 12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암호전문을 보자. 전문에서 슈티코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북조선 지도자가 강조한 것처럼 남조선의 선제공격에 대한 북조선의 반격에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남조선은 북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남조선은 38도선을 따라 마치 마지노선과 흡사한 강력한 방위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준비를 마친 남조선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스탈린 동지가 조언한 바와 같이 북조

16) 1949년 6월 2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3, л.75.

선이 반격할 여지는 없어진다.<sup>17)</sup>

다음으로 1950년 1월 17일 이주연의 주중대사 파견과 관련하여 박헌영이 주최한 오찬에 대해 모스크바에 보고한 슈티코프의 전문을 보자.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김일성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 동지는 남침은 불가능하며, 남한이 침략할 경우에만 반격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는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과 조국통일이 지연되고 있음을 뜻한다.<sup>18)</sup>

이 기록들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조언인 반격전이 성립될 수 있는 이승만의 선제공격을 확고고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엿보이고 있다. 즉 이미 1949년 초부터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신하고 있던 북한<sup>19)</sup>은 스탈린에게서 '선제공격 불가, 반격전 가능'의 의견을 들은 직후인 1949년 봄부터 반격전을 통한 국토완정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1949년 봄부터 보여지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남한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은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남한의 대규모 선제공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일성은 1949년 봄부터 여름까지의 기간에 또 한 차례의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김일성의 대남공격 의지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대규모 침공 의사가

17) 1949년 8월 12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5, лл. 102-106.

18)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보낸 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л.62-65 및 АВПР, ф.059a, оп.5a, п.11, д.3, лл.87-91.

19) 1949년 3월 5일 스탈린과 북한정부대표단의 회담 기록, АПРФ, ф.45, оп.1, д.346, л.20.

사실상 허구로 밝혀졌던 8월부터 더욱 더 노골화되었다. 이의 증거로는 1949년 8월 12일과 14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그리고 1949년 9월 3일 툰킨과 김일성의 개인비서인 문일과의 대담기록을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에서 슈티코프는 김일성, 박헌영과의 회담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조선지도부는 38도선 인근의 무력충돌을 통해 남조선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조선군이 적들의 방위전선을 단숨에 관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sup>20)</sup>

김일성은 남쪽에 대한 공격을 다시 꺼내면서 조선 문제의 해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그러면서 슈티코프는 8월 14일 회담에서 김일성이 “38도선에서의 국지작전으로 용진반도의 점령을 제안하였다”<sup>22)</sup>고 전하였다. 또한 툰킨과 김일성의 개인비서인 문일과의 대담에서도 “김일성은 국제적 상황이 용인되는 경우 본격적인 남조선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은 짧게는 2주일 정도, 길게는 두 달 안에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sup>23)</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들의 내용을 통해 1949년 8월 중순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신하는 한편 한동안 언급을 삼가던 대남 선제공격론을 다시금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20) 1949년 8월 12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5, лл. 102-106.

21) 1949년 8월 14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5, лл. 108-111.

22) Ibid.

23) 1949년 9월 3일 툰킨과 김일성의 개인비서인 문일과의 대담기록을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5, лл.116-119 및 АВІР, ф.059a, оп.5a, п.11, д.4, лл. 136-138.

리고 북한의 이러한 확신과 선제공격 의지의 공개적인 표명은 앞서 언급한 전문, 즉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전문을 보낼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sup>24)</sup>

하지만 북한이 보여준 지속적인 자신감과 선제공격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1949년 3월 북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불가하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던 스탈린은 1949년 8월 중순 김일성의 대남 선제공격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김일성의 의지를 좌절시키게 된다.

즉 슈티코프와 툰킨으로부터 김일성의 선제공격 의지를 전해들은 후인 9월 11일 스탈린은 비신스키를 통해 주북한 소련대사관에 지시를 내려 북한의 선제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sup>25)</sup> 그런데 스탈린이 당시 시점에서 이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선제공격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스탈린이 애초부터 김일성의 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김일성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49년 3월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상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선제공격의 시기가 아님을 통보하는 것으로 족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반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북한 소련대사관에 지시문을 보냈다. 이는 이미 스탈린의 마음속에도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 여부를 다시금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9월 11일에 스탈린이 보낸 지시의 내용 역시 이러한 스탈린의 의지

24) 북한의 자신감과 선제공격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로는 1949년 9월 3일 툰킨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5, лл.116-119; 1949년 9월 14일 툰킨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ВІР, ф.059а, оп.5а, п.11, д.4, л.45; 1949년 9월 1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6, лл.1-21;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л.62-65 등이 있다.

25) 1949년 9월 11일 스탈린이 툰킨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775, л.122. 및 АВІР, ф.059а, оп.5а, п.11, д.3, л.45.

를 보여주는 증거로 들 수 있다. 당시 지시의 내용은 ‘첫째, 남한군의 인원, 장비, 전투능력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 둘째, 남한 내 빨치산의 활동상황, 셋째, 북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여론 동향 및 남한 주민들의 지원 가능성, 넷째, 남한 주둔 미군의 규모, 미국의 예상 반응, 다섯째, 북한 군사력 평가, 여섯째,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소련대사관의 분석’<sup>26)</sup> 등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를 볼 때 최소한 이 지시가 내려질 당시 스탈린은 북한의 공격의지에 대한 어떠한 예단도 없이 다만 선제공격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떻든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주북한 소련대사관 공사 툰킨과 대사 슈티코프는 9월 14일과 15일에 스탈린에게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27)</sup> 그들의 보고서에는 대체로 북한 정부의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인적인 정세평가가 첨부되어 있었다. 즉 툰킨은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북조선의 선제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김일성의 계산처럼 북조선의 조기 승리가 확실 시된다면 남진전쟁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sup>28)</sup>라고 하였으며, 슈티코프는 “인민군의 선부른 개전이 반동적 제국주의자들에게 반소전선의 빌미로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국제정세의 복잡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분명히 전쟁에 개입하여 남조선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전력과 물적 준비는 여전히 남조선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남조선을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sup>29)</sup>고 하였다.

26) Ibid 참조.

27) 1949년 9월 14일 툰킨이 보낸 전문. АПРФ, ф.3, оп.65, д.837, лл.94-99 및 АВІР, ф.059а, оп.5а, п.11, д.4, лл.46-53. 1949년 9월 15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 АПРФ, ф.3, оп.65, д.776, лл.1-21.

28) 1949년 9월 14일 툰킨이 보낸 전문. АПРФ, ф.3, оп.65, д.837, лл.94-99 및 АВІР, ф.059а, оп.5а, п.11, д.4, лл.46-53.

29)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 АПРФ, ф.3, оп.65, д.776, лл.1-21.

보고서에서 보여진 두 사람의 견해가 스탈린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에게서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김일성의 개전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내린다. 9월 24일 스탈린을 위시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작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30)</sup> 그리고 슈티코프에게 이 결의를 북한지도부에 통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로서 1949년 가을 김일성의 개전의지는 또 한 차례 좌절을 맞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스탈린의 생각은 그 해가 다 가도록 다시는 동요되지 않았다.

이상의 과정을 볼 때 1949년은 북한 측의 개전의지에 대한 소련 측의 전쟁억지 시도가 일관되게 보여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완정'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입지가 더욱 확장될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3월에 있었던 김일성, 스탈린의 회담 내용이나 9월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문을 보면 소련은 북한군의 전력이나 미군의 참전 가능성 등의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전에 반대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쟁발발에 대한 소련 측의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가 곧 소련의 전쟁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북한 측으로서는 자신의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 소련의 동기가 반드시 필요했을 뿐이었다. 전쟁물자의 소요 충족과 군의 조직 및 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련의 지원이 필수

30) 1949년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АПРФ, ф.3, оп.65, д.776, лл.30-32 및 АВ ПР, ф.059а, оп.5а, п.11 д.3, лл.75-77 참조. 참고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군사적 측면에서 인민군의 공격준비 상태가 미비하며, 정치적 측면에서 남한의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 있으며, 빨치산활동 역시 남한 전역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전인민적 봉기를 위한 역량을 조직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취약한 한편, 전쟁의 장기화는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간섭할 빌미를 준다는 점을 들어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1949년 3월 김일성, 스탈린의 회담에서 언급되었던 선제공격 반대의 이유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적이었기 때문이었다.<sup>31)</sup>

## (2) 선제공격론에 대한 소련의 동의와 전쟁 지원 : 1950년

1950년이 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 자신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김일성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탈린의 인식 전환이 있기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스탈린의 태도변화를 재촉하는 사건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즉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는 비신스키에게 전문을 보냈다. 전문에는 1월 17일 주중국 북한대사 이주연의 환송식을 마친 후 김일성이 소련대사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전문에 의하면 김일성은 “조선 남쪽의 인민들은 나를 신임하고 우리의 무장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유격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남쪽 인민들은 우리에게 우수한 군사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최근 나는 잠도 못 이루면서 통일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만약 조선 남쪽 인민들의 해방과 조국통일 사업을 지연한다면 나는 조선인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인민군의 공격 문제에 대한 지시와 허락을 받으려 재차 스탈린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스탈린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택동이 소련에서 귀국하는 대로 곧 그를 만날 것”<sup>32)</sup>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의 말을 덧붙였다. 1월 30일의 전문은 김

31) 이 시기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문서로는 1950년 1월 17일 이주연의 주중국대사 파견과 관련하여 박현영이 주취한 오찬에 대한 슈티코프의 전문이 있다. 슈티코프는 전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신이 공산주의자이고 규율 있는 사람이며, 스탈린 동지의 교시가 자신에게는 곧 법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п.346, л.63.

일성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이다.

스탈린이 어떠한 계기로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경시켰는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모호한 상태이다. 다만 당시의 정황과 관련 문건들에 나와 있는 일부 언급들을 통해 몇 가지 이유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을 보자. 전문에는 “모택동 동지. 조선의 동지들과 가진 회담에서 필리포프와 그의 친구들은 변화한 국제정세 때문에 통일에 착수하고 싶다는 조선인들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33)</sup>는 기록이 있다. 이 전문의 내용을 통해 변화된 국제정세가 스탈린의 입장을 바꾸어놓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탈린은 변화된 국제정세로 인해 김일성의 선제공격계획에 동의했다고 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탈린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란 무엇이였을까?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1950년 4월 김일성, 박헌영과 스탈린 간의 회담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스탈린 동지는 김일성에게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이 모두 조선의 통일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국제적 여건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대해 승리를 거둔 덕분에 조선에서의 행동개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중국은 이제 국내문제로 인한 시름을 덜었기 때문에 관심과 에너지를 조선 지원에 쏟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제 필요하다면 자기 군대를 무리 없이 조선에 투입할 수 있다. 중국의 승리는 심리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아시아 해방의 기운을 증명했고, 대신 아시아 반동세력과 그 주인인 미국, 서방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

32)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л. 62-65 및 АВПР, ф.059а, оп.5а, п.11, д.3, лл.87-91.

33)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31, л.55.

국에서 물러나 이제 더 이상 군사적으로 새로운 중국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제 중국이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의 공산세력들에 대한 도전을 더 망설일 것이다. 미국에서 얻는 정보들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도 타국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유럽에서의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불개입의 분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sup>34)</sup>

이 기록에 의하면 중국혁명의 성공에 의한 중국의 북한 지원 가능성 증가, 중소동맹조약 체결과 소련의 핵 보유에 의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 감소를 국제정세 변화의 양상으로 들고 있다. 1949년 중국혁명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49년 6월 30일에 이미 '대소 일변도정책'을 선언했던 모택동의 중국통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당시 아시아의 정세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고 일본공산당도 약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스탈린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일정하게 작용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1950년 2월 중국과 소련은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및 행동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949년 8월에 성공한 소련의 핵폭탄 실험은 미국의 핵 독점 종식을 알리고 소련에게는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핵폭탄 실험이 그 자체로 스탈린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험 성공이 곧바로 미국과의 대등한 핵전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탈린은 소련이 원자폭탄 3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34)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모스크바의 새 증언 5)」, 서울신문, 1995.5.24.

것이다. 즉 핵 보유는 소련에게 심리적인 위안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정책 전환의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건에 제시된 이와 같은 내용에 더해 기광서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련이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의 증가 역시 정책전환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볼 때 북한이 이른바 ‘해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남 선제공격을 스탈린이 계속 억제하고 관망만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1948년의 분단체제 형성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소련으로서 는 무력을 통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949년 이래 지속되어온 김일성의 선제공격 동의 요구는 스탈린에게 부채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국제정세의 몇몇 부분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 기회를 빌려 부채의식을 청산하려는 시도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sup>35)</sup>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하였을 때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스탈린의 공식적인 동기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남조선의 해방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김일성의 언급에 대해 스탈린이 “조선통일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이 충분히 변화하였”<sup>36)</sup>음을 들어 사실상 북한의 선제공격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무력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직접충돌을 회피하고 대신 중국에게 역할을 떠넘기려 한 스탈린에게는 북한의 선제공격과 관련하여 사전에 확실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소련과 미국의 직접대결을 사

35) 기광서, ‘소련의 한국전 개입과정’, 『國際政治論叢』(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참조.

36)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모스크바의 새 증언 5)』, 서울신문, 1995.5.24.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중국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 즉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중국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물론 스탈린은 1949년 7월에 이미 모스크바를 방문한 유소기에게 “국제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두 나라가 옹당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한다. 당신들은 동방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해방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서방국가와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본다”<sup>37)</sup>고 함으로써 자신은 유럽 문제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동아시아의 문제에 보다 깊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1949년 10월에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던 모택동의 의견에 지지를 표한 바가 있었다. 즉 1949년 10월 26일 몰로토프는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발송한 10월 21일자 전보에 대한 스탈린의 회답 초안을 말렌코프 등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이 선제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한다.<sup>38)</sup>

이 기록을 보면 모택동은 중국정부 수립 직후인 10월 21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고<sup>39)</sup> 스탈린도 이와 같은 모택동의 입장을

37) 1949년 7월 27일 유소기가 중국공산당 서기처에 보낸 전보문; 師哲, 『師哲回憶錄：在歷史巨人身邊』(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1), 412쪽.

38)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암호전문 초안(1949년 10월 26일 작성), АПРФ, ф.45, оп.1, д.332, л.48. 위 내용의 전문은 11월 5일 실제로 모택동에게 보내진다.

39) 1949년 5월 18일 코발료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31, лл. 60-61 참조. 코발료프의 전문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공격당할 경우에만 반격할 것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49년 말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하는 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12월 16일 스탈린과의 회담 모 두에서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경제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전체적으로 나라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3~5년간의 평화기간이 필요하다.<sup>40)</sup>

이는 중국이 최소한 3~5년간은 한반도의 전쟁을 포함하여 어떠한 전쟁에도 관여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 자신의 혁명이 완료된 후 북한의 통일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sup>41)</sup> 외부문제를 지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이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스탈린으로서는 이 문제를 모택동에게 직접 제기하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스탈린의 교묘함이 진가를 발휘하였다. 스탈린은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에게 선제공격에 대한 동의의사를 알린 직후인 2월 2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김일성에게 알리도록 슈티코프에게 지시하였다.

권고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참고로 모택동은 “조선 동지들은…… 남조선이 북조선을 공격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군대에 대한 반격을 조언하였다…… 우리는 조선 동지들에게 미군이 떠나고 일본군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남조선을 공격하지 말고 보다 적절한 상황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고 코발료프에게 전하였다.

40)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과 모택동의 대담기록, АПРФ, ф.45, оп.1, д.329, л.9.

41) 북한의 통일전쟁 수행에 대한 모택동의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1949년 5월 1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3, оп.65, д.9, лл.52-53 및 1949년 5월 18일 코발료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31, лл.60-61 참조.

…… 김일성과 내가 회담할 의제에 대해 극비에 부칠 것을 그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한 달 동안 다른 북조선 지도자들과 중국은 물론(인용자 강조) 적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눈치 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는 모택동과는 북조선 지원의 필요성과 조선반도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북조선의 군사역량을 증강시켜 방위를 강화하는 점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sup>42)</sup>

이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북소간의 선제공격 합의사실을 중국이 알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선제공격이 기정사실화되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기 전까지 한반도의 상황 전개로부터 중국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지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되었다. 일례로 1950년 3월 말에 있는 주중국 북한대사 이주연과 모택동, 주은래의 회담에서 김일성과의 회담 성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택동의 물음에 이주연이 즉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주연은 모택동의 질문을 받고 김일성이 요양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회담의 시기와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sup>43)</sup> 모택동은 회담형식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북한이 선제공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으나, 이주연의 즉답 회피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한 모택동의 의도가 실패했던 것이다.<sup>44)</sup>

42) 1950년 2월 2일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п.347, л.12.

43) 1950년 4월 10일 이그나찌예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п.346, л.89 참조.

44) 박명림 교수는 회담에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며, 조선의 통일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그런 작은 지역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1950년 5월 1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п.341, лл.90-91)라는 모택동의 언급에 주목하여, 중국이 이 시점부터 북한의 남한공격 구상과 계획에 대해 찬동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북한의 선제공격계획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서울: 나남출판, 1996), 155쪽 참조.

5월 13일 밤에 열린 김일성, 모택동 회담에서의 상황도 스탈린의 지시가 잘 지켜졌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당시 모택동은 ‘현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다르므로 북조선은 행동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개인적으로는 모택동 동지와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스탈린이 교시했다는 김일성의 말을 들었다. 모택동은 그 말을 들은 직후인 밤 11시 30분에 주은래를 중국 주재 소련대사인 로신에게 보낸다. 주은래는 로신에게 모택동이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자초지종을 듣고자 한다는 말을 전달하였다.<sup>45)</sup> 주은래의 말을 들은 주중국 소련대사 로신은 즉시 위 내용의 전문을 스탈린에게 발송하였다. 만약 모택동이 사전에 북한의 선제공격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전문을 그와 같이 화급하게 모스크바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한 이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일성과 스탈린은 1950년 4월 모스크바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게 된다. 당시 스탈린은 전제조건으로 중국지도부가 전쟁에 동의할 때에만 선제공격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개전 이후 여하한 경우에도 소련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sup>46)</sup>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미국과의 직접충돌을 회피하고 대신 중국에게 충돌의 부담을 떠넘기려 한 스탈린의 의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의도한 대로 1950년 5월 14일 김일성에게서 스탈린이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에 동의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모택동은 내키지는 않지만 자신도 김일성의 전쟁에

45) 1950년 5월 13일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암호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31, лл.52-53 참조.

46)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모스크바의 새 증언 5)』, 서울신문, 1995.5.24. 참고로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중국지도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해방작전은 시작될 수 있다”, “모택동이 아시아문제에 정통하므로 모택동과 의논하라”, “소련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소련은 다른 지역, 특히 서방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택동은 그 와중에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후에 대남작전을 시작하면 북조선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sup>47)</sup>이라고 하여 자신은 북한문제의 해결보다는 대만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한의 선제공격계획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편 1950년 들어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인식의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이게 된다. 우선 1950년 1월 30일 이후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월 4일 김일성은 슈티코프를 방문하여 북한군 보유사단의 수를 10개 사단으로 증설하고, 1951년으로 계획된 소련제 무기의 구매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였다.<sup>48)</sup> 이에 스탈린은 2월 9일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 김일성에게 “추가적인 3개 사단의 증설에 착수하라. 1951년으로 예정된 차관 공여가 1950년으로 앞당겨질 것”<sup>49)</sup>임을 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해 3월 김일성은 슈티코프를 다시 만나 북한군이 사용할 무기 및 탄약, 장비 등을 보충하기 위해 소련에 1억 2천~1억 3천 루블에 달하는 군사물자의 제공을 요청하였다.<sup>50)</sup> 물론 스탈린은 이 요구도 흔쾌히 들어주었다.<sup>51)</sup> 참고로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원조 추이를 살펴보면, 1949년 소련에서 제공한 무기 및 군사장비의 공급액수가 1억 6,350만 루블이었던 것이 1950년에는 8억 7,100만 루블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중에서 차관으로 7억 8,230만 루블이, 그리고 상품교역으로 8,870만 루블에 해당하는 물자가 제공되었다는 것이다.<sup>52)</sup> 말하자면 당시 소련의 무상원조 액수는

47) 박명림, 앞의 책, 159쪽.

48) 1950년 2월 4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71.

49) 1950년 2월 9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76 및 1950년 3월 12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141.

50) 1950년 3월 9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 АВІР, ф.059a, оп.5a, п.11 д.4, л.149-150.

51) 1950년 3월 18일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45, оп.1, д.346, л.142.

170만 루블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지원의 성격이 어떻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제공격에 필요한 소련계 군사물자의 대부분이 전쟁 전에 북한에 투입되었던 것은 사실이다.<sup>53)</sup>

소련의 행동에 변화가 보여지는 두 번째 측면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이었다. 북한의 선제공격계획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이 과거 북한군의 창설 및 강화 임무에서 실질적인 전쟁 작전계획의 수립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부장이었던 유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은 그해 5월 상순 북한에 파견된 군사고문단을 전쟁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전원 교체하였으며, 수석 군사고문은 스미르노프 소장에서 독소전쟁의 영웅인 바실레프 중장으로 교체되었다”<sup>54)</sup>고 한다. 그들은 이른바 ‘선제타격계획’이라는 공격계획의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55)</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련은 1950년 들어 1949년의 전쟁억지에서 탈피하여 전쟁에 동의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환경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충분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소련은 자신이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데 상당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949년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소련의 행위 역시 전쟁주도권의 행사는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련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에게 개전이 가능함을 통보하고, 상당량의 전쟁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였으며, 군사고문단 활동을 통해 북한의 군사작전

52) ЦАМО, Военная помощь СССР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1946-1953 г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1946-1953년)], 1995, 4.2.

53) 1950년 5월 30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출처불명) 참조.

54) 『6·25때 북한군 작전국장/유성철 “나의 증언” : 8』, 한국일보, 1990.11.9.

55) 북한군 “각 사단의 작전계획 수립과 지형정찰 과정에는 모두 소련 군사고문들이 참가하였다.”: 전쟁의 경과와 관련하여 1950년 6월 26일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비밀전문(출처불명).

수립을 지원했을 뿐 그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전쟁의 주도권을 쥔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련의 입장은 이후의 전쟁기간 내내 계속 이어졌다.

### 3. 맺음 말

한반도가 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북한 지도부는 북한에 구축된 이른바 ‘민주기지’를 발판 삼아 자신의 주도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였다. 분단 초기 그들의 머릿속에는 평화적인 혹은 무력에 의한 수많은 통일방안들이 명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들에게는 무력을 동원한 방식만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비록 남한의 군사력이 강력하지 못하고 사회상황 역시 안정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북한 역시 그러한 남한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을 뿐더러 남한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후원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에게는 전쟁에 대한 소련의 동의와 동의에 바탕을 둔 소련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물론 북한이 소련에게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소련으로부터 전쟁에서의 소요를 충당할 군수물자와 무력의 조직 및 통제술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했던 북한에게 소련의 동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대남 선제공격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의 과정에서 소련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1949년의 소련은 북한의 선제공격 동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컸고, 직접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은 자신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그 여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소련이 '동지적 의리'라는 명분만을 가지고 군사력 우위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북한의 요구를 경솔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완정'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3월에 있었던 김일성, 스탈린의 회담 내용이나 9월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문을 보면 소련은 북한군의 전력이나 미군의 참전 가능성 등의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전에 반대하였을 뿐이었다.

1950년에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소련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었고, 중소동맹조약의 체결과 소련의 핵 보유로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는 등 1949년에 비해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북한의 끈질긴 선제공격 동의요구도 소련의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중국지도부가 전쟁에 동의할 때에만 선제공격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개전 이후 여하한 경우에도 소련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자신의' 전쟁이 아닌 '그들의' 전쟁으로 한정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입장으로 보기에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더불어 1949년 이래 국토완정의 기치를 내걸고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던 북한지도부의 행태 역시 '소련의 전쟁 주

도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집요하고 적극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당시 개전을 주도한 측은 북한이었다. 그리고 소련은 단지 북한의 의지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을 뿐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6. 4. 17, 심사완료일 : 2006. 6. 5)

주제어 : 김일성, 스탈린, 한국전쟁, 전쟁 주도권, 선제공격

K C I

<ABSTRACT>

## The Korean War and the Soviet Russia

- Rethinking the Question of War Initiative -

Lee, Jae-h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cussion process about preemptive attack to South Korea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Russia from 1949 till 1950, and found out the truth of North Korean initiative to the War.

After decisiv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North Korea made constant efforts to reunify Korea by the way of military action. But North Korea could not gain a victory over South Korea without Russia's support. Therefore he had to obtain Russia's agreement to war action to South Korea in order to gain Russia's support.

However at least 1949 Russia did not agree North Korea's intention to attack to South, because dispute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lead to Russia's undesirable intervention to Korean matter.

In the 1950 year Russia's perception to Korean issue altered fundamentally. In comparison with 1949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nged to North Korean side. So Russia did agree North's intention to preemptive attack to South, and supported North's preparation of war. However this matter can not explain Russia's war initiative. Because at that time Russia did not participate to war actively and Russia's agreement to war was caused by North Korea's stubborn request.

Key Words : Kim Il Sung, Stalin, The Korean War, War Initiative, Preemptive Attack